

대학  
어학연구소의

할  
일은  
무엇인가

趙 俊 學 (서울대 英語英文學科)

I. 머리말

흔히들 오늘날을 일컬어 국제화시대라고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사는 오늘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 있어서 국가와 국가간의 긴밀한 교류를 요구하는 시대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런데 국가와 국가간의 교류를 원활히 하려면 무엇보다 언어의 소통이 선행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교간에 국제 교류를 활발히 하려는 나라는 외국어교육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들

이 영어, 불어, 스페인어 등을 중등학교에서부터 가르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예를 들어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 같은 나라는 외국어교육이 필요없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점이다. 하기가 영어만 가지고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와 교류하는 데 큰 불편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미국도 다른 어느 나라 못지 않게 외국어교육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어떤 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결국 그 나라 언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미국 사람들이 터득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각급 학교에서 외국어교육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Foreign Service Institute(외교연구원)와 Defense Language Institute(국방외국어대학) 등의 특수기관에서 외교관과 국방요원들을 위한 집중적인 외국어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에 들은 바로는, National Science Foundation(국립과학재단)과 유사한 성격을 띤 National Language Foundation(국립언어재단)과 같은 기구를 창설할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 미국이 언어 연구와 교육 특히 외국어교육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지 알 만하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살펴보자.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는 국책으로 영어를 제 1외국어로, 불어, 독어, 중국어 그리고 최근에는 스페인어와 일본어를 제 2외국어로 지정하여 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 가르치도록 해 왔다. 흔히들 1960년대 후반부터 한국은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다고 하는데 그 원동력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외국어교육의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외국어를 모르고는 외교관도 상무관도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쉽게 짐작이 가는 일이다. 실제로 외교관 양성에 있어서 외국어 능력의 함양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있으며, 또 대외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일수록 임직원의 외국어연수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86아시아게임과 88올림픽게임을 치루어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 외국어교육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경기 자체

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는 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경기를 계기로 해서 물려올 외국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한국의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도 외국어에 능통한 자원봉사 안내요원이 얼마든지 필요할 것이다.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는 이 점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데 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 대학의 외국어교육은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외국어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학생을 찾아 보기가 힘들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대학의 외국어교육을 개선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어학연구소의 기능을 반성, 검토하고 앞으로 어학연구소가 수행해야 할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서 고찰해 보는 것도 뜻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의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고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어학연구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외국어교육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 II.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의 현황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는 언어 및 언어교육에 관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을 목적으로 국립대학교 설치령 제 4 조에 의거하여 자령 1133호로 1962년 12월 31일 설립 인가를 받고, 1963년 1월 1일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로 정식 발족하였다. 그 후 22년 동안 한편으로는 우리 나라의 언어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정부 봉사활동으로서 해외에 파견될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 임직원들의 영어능력 측정 및 영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975년 3월 서울대학교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후에는 주로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영어교육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현재 어학연구소에는 연구부, 교육훈련부, 언어능력측정부의 3개 부가 있는데 각 부의 활동

을 대충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연구부의 활동

가. 연구지 발간

1965년 2월 「言語教育」을 창간하고 제 2호부터 「語學研究」로 개제하여 1983년 제 19권까지 연 2회 주로 국어로 쓴 논문을 수록·발간해 오다가 1984년 제 20권부터 「語學研究」를 보다 수준 높은 국제적인 학술지로 키우기 위해 영문판 *Language Research* 를 2회 더 내게 되어 연 4회를 발행하게 되었다.

또한 1969년 10월 언어교육에 관한 연구논문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言語教育」을 창간하여 연 2회 발간해 오다가 1975년 6월 제 7권부터 「應用言語學」이라 개제하여 9권 1호까지 발간하였으나 1978년 「語學研究」에 통합되었다.

지금은 한국어언어학회에서 발간하는 「언어」지(1976년 6월 창간)가 있어서 언어 이론의 연구와 보급의 일익을 담당해 주고 있지만 1960년대 중반 이래 당시 미국에서 선풍을 일으키고 있던 새로운 언어학이론 즉 변형생성문법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하고 보급하는 데 있어 「語學研究」의 공헌은 지대한 것이었다. 근년에 와서는 새로운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어를 분석한 우수한 논문들이 국제적으로 널리 읽혀지기에 이르러 1975년부터 미국의 Sociological Abstracts, Inc.에서 발간하는 *Language and Language Behavior Abstracts*에 「語學研究」의 논문발제가 수록되고 있으며 1983년 5월에는 드디어 국제 표준정기간행물 번호(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인 ISSN 0254-4474를 받기에 이르렀다. 필자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간행되는 인문·사회계통의 학술지로서 ISSN 번호를 받기는 「語學研究」지가 처음이다.

나. 어학연구회 개최

1967년에 제 1회 어학연구회를 개최한 이래 1984년까지 18회를 개최하였다. 매년 가을이나 겨울에 2일간에 걸쳐 열리는 이 연구회에는 국내의 언어학자들은 물론 외국의 저명한 언어학자들도 간혹 참가하여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또 일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벌인다. 금년 제 19회 어학연구회는 12월 13일과 14일에 개최

될 예정인데 미국 UCLA 대학의 Edward L. Keenan 교수가 참가하여 논문을 발표하기로 되었으며 Indiana 대학의 Fred W. Householder 명예교수의 참가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이 두분의 초청비용은 국제문화교류협회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

#### 다. 어학세미나 개최

주로 서울대학교의 교수와 대학원생들을 위한 모임인 월례세미나를 매월 개최하는데 1985년 6월 현재 69회의 모임을 가졌다.

#### 라. 공동연구 수행

지금까지 문교부, 평화봉사단, 서울대학교 학술재단의 연구 지원을 받아 수행한 공동연구 가운데 중요한 것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a. 한국어와 영어의 비교분석(1968)
- b. 해외파견자의 영어교육을 위해 *Spoken American English for Koreans* 개발 간행(1969)
- c. 한국어와 일본어의 비교분석(1976)
- d. 일본어교재 편찬(1978)
- e.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재 I, II, III권 편찬(1977~1980)
- f. 문교부 1종도서(「중학영어」) 연구개발(1978)
- g. 한국인의 언어의식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1981)
- h. 대학원학위논문 제출 자격고사 외국어과목 시험 개선방안 연구(1981)
- i. 대학원에 있어서의 외국어과목 시험의 표준화방안에 관한 연구(1984)

## 2. 교육훈련부의 활동

1963년부터 실시해 오던 해외파견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은 1975년 서울대학교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중단되고 교육훈련부의 활동은 주로 서울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 중요한 활동은 다음과 같다.

#### 가. 기초과정 영어실습

1977년부터 서울대학교의 기초과정 학생 약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정규 교양영어수업의 일부로서 1주일에 1시간씩 어학실습을 실시하고 있

다.

#### 나. 자율영어실습

희망자는 누구든지 하루 1시간씩 30분간 회화 테이프 청취연습과 30분간 비디오테이프 시청연습을 한다. 교재는 *Michigan Action English*, *Welcome to English*와 *Vision U.S.A.* 등을 사용한다.

#### 다. 일본어 특강

1년에 4번 12주씩 일본어강좌를 개설하고 있는데 초급반 40명씩 2개반, 중급반 20명 1개반을 운영하고 있다.

#### 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과정

외국인이나 교포들을 위해 개설된 한국어과정은 초·중·고급반으로 나뉘어 봄, 여름, 가을, 겨울 4학기에 걸쳐 실시되며 한 학기는 12주, 주당 5일간, 1일 3시간씩의 강의와 30분의 어학실습으로 진행된다.

1969년에 이 과정이 처음 개설되었을 때는 수강생들이 주로 재일교포학생들과 일본을 비롯한 외국상사의 직원이나 그들의 부인들이었으나 금년에 와서는 문교부초청장학생을 비롯하여 자비유학생의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더우기 1983년부터는 말레이시아정부가 Look East Policy에 의거 자국 학생들을 데려 파견하고 있어 그들을 위해 1개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 유학생의 수가 급증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국력이 증강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 언어능력 측정부의 활동

#### 가. 해외파견자 및 기업체 임직원의 언어능력 측정

1967년부터 UNDP에 Colombo Plan에 의한 해외파견자들의 영어능력을 측정해 왔는데 1984년까지의 총 응시자수는 52,594명에 달한다. 최근에는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자체 외국어연수를 한 후 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언어능력 측정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서 연간 응시자수가 7,000명에서 9,000명을 헤아리게 되었으며, 또 하나 특기할 일은 근년에는 영어 외에 일본어, 불어, 스페인어, 독일어 등 제 2외국어의 응시자수가 점점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모든

시험결과는 컴퓨터로 신속히 처리되고 있다.

나. 대학원 석·박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1984년 1학기부터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의 석·박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시험 중 영어과목 시험을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다. 기 타

일본 문부성초천 유학생선발시험과 문교부의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 Ⅲ. 어학연구소가 할 일 : 외국어교육의 개선안

이상에서 우리는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의 활동 상황을 개관하였다. 20여 년이란 짧은 기간에 언어이론의 연구 및 보급과 외국어교육활동 그리고 언어능력 측정을 통해 대정부 및 사회봉사와 언어학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고 자부하고 싶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렇다할 만한 일을 하지 못했다. 서두에서도 지적했듯이 오늘날은 국제화시대이다. 지금이야말로 외국어에 능통한 유능한 인재를 대량으로 배출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그리고 이 막중한 임무를 어학연구소에서 짊어져야 할 것이다. 아무리 외국어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대학의 교과과정을 외국어과목 일색으로 개편할 수는 없는 일이며, 또 모든 대학생들이 다 외국어에 능통해지기를 바랄 수도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외국어 학습에 흥미를 갖는 학생들을 과외활동을 통해 지도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상당한 시설 투자가 선행해야 한다.

여기서 잠시 서울대학교의 실정을 살펴보자. 서울대학교에는 현재 30,000여 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다. 이들은 우수한 두뇌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부분이 외국어를 읽을 줄은 알되 말할 줄은 모르는 형편이다. 이것은 학생들 개인에게 있어서나 국가적으로나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와 같은 비능률적인 외국어 교육의 원인을 우선 미비한 외국어교육 시설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에는 6개실에 264석의 어학실습실이 그나마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이는 강원대학교의 526석(시청각교실 포함)에 비하면 2분의 1, 한국의국어대학교의 1,464석(시청각교실 포함)에 비하면 5분의 1도 못 된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의 학생수가 이들 대학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감안하면 어학실습실의 부족 현상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어학실습기계가 너무 노후하여 2개실 66석은 사용불능의 상태이다. 앞으로 일반교양영어의 어학실습을 충실히 하고 외국어전공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어학훈련을 시키려면 최소한 600석 규모의 어학실습실과 시청각교실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학실습실은 외국어교육의 효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올리려면 학생들이 외국인 강사와 생활을 같이 하면서 집중적인 어학훈련을 쌓아야 한다. 과거에 어학연구소에서 실시한 Summer English Program<sup>1)</sup>(1978.8.9~19; 1979.7.22~8.1)과 Winter English Program(1979.2.14~21)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2주일간만 집중훈련을 받으면 외국어회화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외국어회화를 배우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그러한 집중적인 어학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어학생활관이 필요하다. 만일 수용능력 100명 정도의 어학생활관만 확보된다면 1년에 2,600명의 학생에게 외국어에 능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서울대학교 신입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만일 전국 각 대학에서 신입생의 절반 가량에게 이와 같은 집중 훈련을 시킨다면 우선, 실용적인 면에서 88올림픽이나 그보다 더 규모가 큰 국제행사를 개최한다 하더라도 자원봉사 동역안내요원을 확보하는 일 따위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어에 능통한 유능한 인재를 대량 확보한다는 것은 국가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

1) 이 프로그램은 학생 120명을 뽑아 10개반으로 나누어 각 반에 평화봉사단원을 1명씩 배치하여 관악사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영어회화를 집중적으로 지도한 것인데 그 성과는 놀라울 만큼 좋았다.